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중 윤
편집인: 나 희 주
편집주간: 원 필 현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역사 창조를 위해 열려라 하늘문아!

성경통신공부 전반기 평가

서울교회 성도들의 말씀생활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성경통신교재 공부의 전반기 평가가 있게 된다.

교육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1호에서 26호까지 빠짐없이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것이며 중도에 포기했던 성도들을 위해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제지는 간사실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

여름 전교인 가족수련회 개회키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삼척산업대학에서 제2회 전가족 수련회를 개최한다.

현재 준비위원회에서는 온성도의 영육간 안식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울 가족이 일체감을 형성하고 영적 재충전과 더우기 교회건축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준비하자.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다음 주일(7월 4일) 예배시 건축헌금을 하게 된다.

성령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는 국내외적으로 감당해야 할 크고도 많은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교회당을 신축기로 했다.

이 일을 위해 이종운 목사님은 최근 교구별 연합다락방 모임에서 4가지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온 교회가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①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교회가 한 마음(一心)이 될 것과 ②하나님이 준비하신 터전을 속히 허락해 주실 것과 ③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적 축복을 소낙비처럼 부어 주실 것과 ④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목요일(6월 24일) 유중관 집사(진선자 집사)가정에서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그리고 박해길 선생(조성미 권찰)가정에서는 순창 고추장 500통을 각각 건축헌금으로 바쳤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다음 주일에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교구별 연합모임

전반기를 결산하는 교구별 연합모임이 지난 주 월요일(21일)부터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연합다락방 모임을 매 주마다 가져왔다.

이번주에는 9, 10교구가, 7월 2일(금)에는 5, 6교구가 각각 오후 7시에 모임을 갖는다.

주의 영광을 위한 승전예배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6월 20일) 찬양예배시 흥해를 건넌 기쁨과 감화로 흥해작전 승전감사에 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온 성도들은 93년도 흥해작전 주제인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를 마음에 다시 새기며 새 역사의 참여를 다짐하였으며, 기도를 맡은 참모장 유윤진 장로는 “7대 기도제목을 두고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민족의 흥해를 건널 수 있고 특히 교회건축을 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그동안 각분과별로 수고해온 참모진들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한 후, 이종운 목사님 “칭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흥해를 건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강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1:9-14)



주님의 초청들

이종윤 목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끌고 육지에 도달하자 마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시고 함께 조찬을 한 아름다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습관 가운데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에 내려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교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이 부분을 다섯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 하실 때에 인간들을 사 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고난이 끝나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먹으라’(12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을 거닐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와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장 41~45절, 49절과 같은 말씀인데,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메

시아를 만났다’(요1:41)고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에도 ‘와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벌써 보았다고 초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요1:49)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메시아 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2.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마11:28~30)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모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안식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안식에는 주는 안식과 발견된 안식이 있는데 주신 안식은 칭의이고 발견된 안식은 성화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칭의와 성화도 우리에게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어리석습니다. 이런 자들을 택하시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야 진정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나눔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진리를 배우고 공동생활을 알게 되고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3. 와서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막6:31)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무척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묵상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멀찍이 바라도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품안에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주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와서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 잡은 제자들이 육지에 이르렀을 때에 ‘와서 먹으라’(요21:12)고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손에 쥐신 영광의 주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믿음을 잃은 제자들에게 아침 대접을 하시며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제를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고 주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5. 와서 상속을 받아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4~36).

인간의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은 다 흠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상속 받을 자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돌맹이질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채워지는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과 엄청난 고통이, 절망의 순간들이 수 없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간 것은 결국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앞에 오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오라고하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자

얼마전 우리 교회를 방문한 러시아 선교단의 간증과 찬양은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웅변해 주었다. 철의 장막 너머 암흑의 세계에서 공포의 음모만을 일삼아 왔던 현역 고위 장성들이 선교와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 왔을때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체험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삭발한 주의 종을 모시고 감격과 눈물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그 열기, 그 감동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것이고 생업을 뒤로 한채 밤·낮으로 교회를 손질했던 사랑의 수고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집보다 먼저 교회를 지었던 믿음을 보시고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영적 폐허 속에서 서울교회를 부르셔서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갱신의 깃발을 들게하고 인도와 아프리카의 소련과 아랍권까지 끝없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김치세미나를 계속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전건축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행진을 원하신다. 우리는 물론 자손 대대로 이어갈 솔로몬의 축복을 이번 맥추절에 체험하자. 이른바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1993년 맥추절은 정녕 서울교회가 세계 선교센터로서의 대행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도록 눈물의 기도와 순교자적 믿음으로 기록되기를 순례자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한다.



유대절기중 맥추절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유대력에는 세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출 23:15-17).

이 절기들은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와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무한한 은혜들을 주시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들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맥추절이란 농경역법에 따른 기념절기입니다. 이 때는 모액을 거두는 때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축제때 보릿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만에 오는 절기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성회로 공포되고 노동까지 금하며 잔치를 합니다.(레 23:21).

맥추절의 목적은 철저히 신앙적입니다. 즉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 밀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의미로 볼때 맥추절(오순절)은 성도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교회형성의 예로 나타냅니다(행 2:1-4).

그러므로 맥추절은 단지 농경역법에 따른 어떤 집단의 축제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적 절기가 됨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맥추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며 기록하게 지켜야 할 영적축제가 됩니다.

'93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

장명숙 집사

출근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린 오늘도 살림을 약속한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의 손길. 남편은 91년부터 건축사 시험을 준비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왔던 그 꿈을 이루려고 남편은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굳은 각오로 공부하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었던 일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일도 잠시 쉬었다.

남편은 1, 2차 시험을 잘 치루었다고 했다.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더할 수 없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당연히 합격되었다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 허무함, 막막함,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 마음이 이런데 그때 남편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92년 새해는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쉬던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에 힘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공부도 하시고 합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부는 기도하며 또 많은 분들께 기

도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92 홍해작전 시작되고 우리 부부는 작년과 달리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건너야 할 홍해와 기어코 가야 할 가나안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많은 분들의 기도, 특히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남편은 시험을 잘 치루고 떨어져도 하나님 뜻이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고 주님은 가슴 벅찬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지금 남편은 '산돌 건축사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천 방법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혹 우리 앞에 광야생활 40년같은 나날들이 다시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편은 가끔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시험을 치루려던 그때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혹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망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6월 학습·세례식

6월 학습·세례식이 지난 6월 23일(수) 수요일에 1,2부를 통하여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수세자들은 학습 6명, 유아세

례 3명, 세례 11명, 그리고 입교 1명으로 총 21명이었으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주인것을 고백하였다.



순례자칼럼

비전있는 교회

박 두 호 집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벅찬 감격속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이곳까지 열심히 달려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얼마전 아는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나는 서울교회의 탄생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았다.

삭발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던 순간들. 슬픔과 분함과 원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던 시간들. 한주에 몇번씩 만나고도 보고싶어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던 순간들.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를 잊었는가?

새벽기도회. 삼일밤 기도회. 금요기도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던 경배와 찬양예배.

지금도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다시 한 번 자신을 발견하며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를 받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흠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모두가 다시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악수를 나누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고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0-13)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복음을 위하여 우리 서울교회에 명하신 비전 감당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갱신운동의 목회자세미나와 세계교회를 잠깨우는 김치 세미나. 새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가 되자. 이 민족 사회에 책임있는 교회로서 소외된 이웃에 친구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워 실천하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29:18)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길없는 시대에 길을 열어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성도가 많은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한다.

1,200여세대, 3,500여명의 교회로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칭찬과 덕을 세우는 교회로,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며 세계를 교구로 삼아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원한다.



말씀의 뿌리

제암교회에서
순교하신 아버지

안순이 권사

외삼촌 김광섭 목사의 소개로 아펜젤라 선교사를 알게된 아버지(안중후)는 그로부터 복음을 받아 순교까지 하시게 되는데, 나는 그때를 어려서 잘 모르나 어머니의 말씀을 회상해 보면 처음에는 방과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05년 8월 5일 초가 예배당인 제암교회(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를 창립하여 설교도 하시며 마을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여 기독교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일제 치하에서 빼앗긴 구전을 찾기 위해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갇힌을 신고 서울까지 왕래하시며 독립운동가들과 만나 활동하셨는데 마침내 만세운동은 활화산 터지듯 확산되었으며 발안에서도 장날을 정해 만세시위를 갖졌다고 한다.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주재소 일본경찰들과 일본 헌병 30명이 제암리에 들어와 주동인사들을 예배당에 감금시키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3명이 희생되는 비극 후에 아버지도 순교를 당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순교를 각오하셨던지 어머니께 항상 어떠한 고

생도 각오하며 최후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유언이 되었다고 하신다.

둘째 언니는(안남해) 이화학당에서 유관순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며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순교하신 후 왜군들의 추적이 심해 출가하고, 우리가족(어머니와 큰 오빠, 작은 오빠, 나) 4식구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천안으로 옮기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왜경들의 추적과 인구 조사가 나오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지 -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핍박을 당한단 말인가 -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단 말인가 하며 고통스러워 하며 고통스러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께서 신앙을 포기하시면 편히 살 수 있건만 끝내 믿음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 철이 없던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늘 쫓기시면서도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다시 온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1. 만물이 다 주의 것을 고백한다면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순종의 “아멘”이 있을 것이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복음의 사명을 위한 새 예배당을 주소서.
2. 백추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케 하소서.
3. 진가족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